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ISSN 1229-0106

독일언어문학

제90집 2020.11

별쇄본(pp. 69~87)

슈니츨러의 『젊은 메다르두스』에 묘사된
욕망하는 주체와 시민사회

김 희 근 (한양대)

한국독일언어문학회

www.kci.go.kr

슈니츨러의 『젊은 메다르두스』에 묘사된 욕망하는 주체와 시민사회

김희근 (한양대)

국문요약

메다르두스 클레어는 모순적인 인물이다. 작품 초반부 그는 애국주의의 수호자로 등장하며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발루아 왕가의 공주와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숙명적 과제로 삼았던 프랑스군에 대한 저항을 망각한다. 이러한 모순성은 작품을 영웅드라마로 간주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작품 후반부에서 메다르두스는 다시 반영웅의 모습을 넘어선다. 그는 사면 제의를 거부하고 영웅이 되어 죽는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성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윤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릇된 욕망의 결과였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모습 뒤에는 가족을 위한 복수에 실패하고 연인과의 사랑에 좌절한 패자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의 억압된 내면은 한편으로 빈 시민사회의 심리적 특성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작가 슈니츨러의 회의주의적 시각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왜곡된 집착과 오인으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현대인의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핵심어: 슈니츨러, 영웅개념, 욕망의 주체, 시민사회 비판, 라캉의 욕망이론

I. 들어가는 말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작가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1862-1931)는 작중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성적 콤플렉스 등에 의해 억압된 세기전환기 빈 시민사회의 심리적 상황과 데카당스적 분위기를 탁월하게 묘사했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서막이 딸린 총 5막의 역사드라마 『젊은 메다르두스 Der junge Medardus』(1909)¹⁾ 역시 작가의 작품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 아버

1) 『젊은 메다르두스』는 이후 “ME”로 축약하고 쪽수만 표기한다.

지와 외삼촌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지역방위군에 자원입대하지만 여동생의 자살과 사랑하는 여인의 간계로 인해 내면의 갈등을 넘지 못하고 구국의 과제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죽음을 택하는 인물 메다르두스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빈 시민사회의 세기말적 징후들이 주인공 메다르두스의 왜곡된 욕망과 허위 의식, 삶과 죽음의 문제, 성의 문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드물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도 작품에 나타난 영웅주의 비판에 집중된다. 작품에서 메다르두스는 영웅으로 설정되었지만, 서사구조에는 영웅드라마에 대한 보편적 기대에 상응하지 않는 요소들이 자주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작품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메다르두스』는 주인공이 적을 제거하고 가족 또는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며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또는 개인적 윤리나 의무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인간 또는 세계의 정신을 표상하고 최후의 시련을 극복하는 식의 영웅 드라마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비전형적 서사특징에 주목하면서 인물 메다르두스를 반영웅 또는 비영웅으로 규정하고, 해체된 영웅의 이미지가 주로 슈니츨러의 영웅주의 및 역사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영웅주의에 토대를 둔 당대의 역사적 시각에 대한 작가의 환멸 때문이라는 것이다.²⁾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동향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살피되, 개인 메다르두스의 뒤틀린 욕망과 시민사회의 의식을 연결하여 작품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영웅드라마의 기본적 특질, 즉 영웅적 인물이 세계와의 대결구도를 통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에 대한 탐색보다는 인물이 극의 흐름을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관과 주위세계와의 갈등상황,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작가의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하게 주위세계의 요구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억압된 내면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전쟁에 도취된 빈 시민사회의 모순적 실체를 드

2) ‘영웅주의 및 전쟁열광, 역사의 흐름’에 대한 비판의 시각에서 작품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Geschichte und Drama bei Arthur Schnitzler」(Offermanns 1981), 「Geschichte und Geschichtsphilosophie im modernen Drama」(Žemgac 2002), 「Der deutsche Napoleon-Mythos. Literatur und Erinnerung」(Beßlich 2007), 「Schnitzlers Pazifismus und das Medardus-Drama」(Bobinac 2015) 등이 있다. 아울러 영웅드라마가 아닌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Literarische Moderne und Erster Weltkrieg. Arthur Schnitzler in dieser Zeit」(Müller-Seidel 2000).

러내는 것이다. 인물 메다르두스는 파멸을 향해 다가가면서 거짓과 허위에 얽매인 채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동시에 시민사회의 속물성과 폭력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다.

II. 욕망하는 주체

II.1. 사랑과 운명에 좌절된 영웅

나폴레옹 1세의 프랑스군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빈을 포위했을 때다.³⁾ 주인공 메다르두스 클레어는 도시 방어를 위해 자원입대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어머니 클레어 부인이다. 1805년에 있었던 나폴레옹 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는 그녀에게 최고의 관심사이자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복수의 날을 주도할 영웅’(ME 98)인 셈이다. 메다르두스 역시 “인류를 욕보이고 경멸하는 자에게, 보나파르트에게 죽음을!”(ME 108)이라고 부르짖으며 영웅이 되어 죽는 것을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열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다수의 빈 시민들과 다름없이 저급한 애국심에 젖어 맹목적으로 전쟁에 열광하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하다. 여동생 아가테에게 그는 학업보다 유희적 일상을 즐기는 게으른 오빠이고(ME 82), 외삼촌 에센바허에겐 허영과 속물근성에 빠져있는 조카로 보일 뿐이다(ME 85). 어머니 역시 전쟁을 통해 아들의 나태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한다(ME 87). 영웅이 되는 것은 메다르두스에겐 강요된 사명인 동시에 모험에 대한 호기심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나폴레옹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빈에서 왕권회복을 노리며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 출신의 프랑수아가 클레어 가정에 나타난다. 그는 아가테와의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프랑수아의 아

3) 제5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유럽의 국제정치 질서는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맥만 남은 신성로마제국의 제위를 차지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1791년 프로이센과 연합을 이루어 프랑스에 대항하기 시작한 이후로 20년에 걸쳐 유럽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1809년 4월 9일 프랑스의 동맹국인 바이에른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이후 5월 13일 나폴레옹은 빈에 입성하고, 10월 14일 쾰른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오스트리아로부터 전쟁 배상금과 영토를 할양받았다.

버지가 시민계급 출신인 아가테와의 결혼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좌절한 두 사람은 그날 밤 도나우 강에 몸을 던진다. 메다르두스의 내면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황폐화된다.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도 이미 사라져 버렸다. 영웅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친구 에첼트가 경고한다.

메다르두스 : 눈물은 사악한 것, 철석같은 절망을 연약한 슬픔으로 녹여버린다네.
복수의 결의마저 흘러보내지.

에첼트 : 슬픔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지 말고 예정된 길을 걸어가게 [...]

메다르두스 : 나의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ME 123)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던 메다르두스는 아가테의 장례를 치른 후 묘지에서 프랑수아의 여동생 헬레네를 우연히 만난다. 그는 갑자기 아가테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헬레네를 애인으로 만들고 능욕하여 아가테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발루야가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다.

메다르두스 :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잊었던 말인가? 아가테는 그들에게 보잘 것 없는 존재였던 것이야, 에첼트. 그래서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잊었던 말인가, 에첼트? 나는 그렇지 않네! 내가 그들에게 양갓음할 때가 왔네! 하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녀들이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를 지르겠지. 대공과 대공 부인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난잡하게 형클어진 침대에서 공주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녀를 계단에 세울 것이다 [...](ME 160).

에첼트 : 메다르두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자네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명예를 잃는 일이 될 것이네.

메다르두스 : 자네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나. 명예, 조국 [...] 모두 공허한 것이지 - 나의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까지는(ME 175).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을 설득하는 에첼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가테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던 메다르두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도리어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든다. 게다가 그녀의 간계에 말려들고 만다.

순수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영혼을 지닌 아가테를 팜므 프라질 *femme fragile* 이라고 한다면, 헬레네는 관능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팜므 파탈 *femme fatale* 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왕권회복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민계급 출신의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오빠 프랑수아에게 연민을 느끼기보다 분노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냉혹한 성격의 여성이다. 왕권회복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서,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메다르두스를 황제암살계획에 끌어들인다. 발루아 가문에 대한 복수와 헬레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번민하던 메다르두스는 잊고 있던 사명을 다시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된다. 나폴레옹에 대한 복수의 의지는 프랑스군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다가 죽은 외삼촌의 희생으로 더욱 극대화된다. 그러나 복수는 실패하고 만다. 거사를 계획하던 날 메다르두스는 쾨른 궁전 계단에서 헬레네를 우연히 마주친다. 그녀 역시 암살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메다르두스는 그녀가 나폴레옹의 연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헬레네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자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황제암살을 위해 준비해둔 칼로 그녀를 살해한다. 그는 체포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영웅적 사명의 수행과 헬레네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진 그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메다르두스 : 복수자, 해방자의 손에서 빛나던 무기였건만, 한 여인의 독을 품은 호흡으로 범부의 무기가 되어 버렸다 [...] 조국을 위해 복수하려던 자가 발루아가에 의해 고용된 살인범이 되고 말았다(ME 252).

그러나 체포된 메다르두스는 헬레네가 나폴레옹 암살과 정권의 전복을 획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뜻하지 않게 황제를 구한 의인이 된다. 갑자기 그는 ‘기품 있는 살인자’(ME 258)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어 황제의 부관참모 라프 장군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나폴레옹이 메다르두스를 직접 만나 사면을 제의할 것이라는 말을 전한다. 하지만 메다르두스는 사면을 거부한다. 사면이 되어도 자신은 계속해서 황제를 죽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공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담대한 결의를 밝히던 그는 어머니와 에첼트가 교도소를 방문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쏟아내고, 게다가 죽은 헬레네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다.

메다르두스 : 에첼트, 자네는 어제 내가 무엇 때문에 길을 잃은 자가 되어 방황했는가를 알고 있네. 나는 영웅적 행위를 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네. 내 마음속에는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와는 다른 어떤 것이 끓어오르고 있네.

클레어 부인 : 다른 것? 그 불행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 (ME 261).

주위의 설득과 내면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메다르두스는 사면을 거부하고 사형장으로 가겠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다. 얼핏 헬레네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이제까지의 삶을 구속했던 영웅적 사명의 의미를 마침내 그가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우연의 노리갯감인양 그는 휘둘러진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Kienzle 2001, 502),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웅적 선택을 하려는 것이다.

작품 후반부의 이 장면을 통해 관객 및 독자는 메다르두스를 영웅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택한 이유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그에게선 목표를 좇는 이상주의자가 되어 성장을 추구하며 꿈을 성취하는 영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영웅 메다르두스의 모습은 오히려 국가와 가정을 위해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사랑에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과 중첩된다. 죽음의 선택은 운명에 지배당한 개인의 광적인 집착과 분노, 그리고 좌절의 발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메다르두스는 에첼트에게 사랑에 대한 갈망과 환멸로 고통 받는 심정을 털어 넣고, 충족될 수 없는 부정성의 형태로 남아 그를 괴롭히는 운명의 횡포에 비관한다.

메다르두스 : 내 영혼 가운데 그녀의 형상을 에워싸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 그 안에 증오와 동경, 그리고 존경심이 가물거리고 있네 [...] 어제 쇠브룬 궁전 안뜰에서 나에게 그토록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였던 그녀가 사명을 망각하고 황제의 애인이 되어 등장하자, 그토록 내가 숭배하던 그녀의 형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타오르던 불꽃도 갑자기 꺼져 버렸네. 그러나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면서 내 영혼 안에서 다시 굳센 결심이 생겨났다네. 나는 다시 - 아니 처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네, 나의 사명은 순결한 것이네 - 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네 - 그러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네! [...]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또한 그것을 살리고 싶네! [...] 기대하지도 않았던, 망각하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지, 일그러진 모습의 기억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 늘 나를 운명에 휘둘리는 바보로 만들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 말이네(ME 261f).

II.2. 희비극을 넘나드는 욕망의 주체

극의 주요 흐름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막에서 가정과 국가의 불행을 극복할 영웅으로 묘사되던 메다르두스는 곧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의 모험에

빠지고 정치적 음모에 휘말리며 질투심이 일어 헬레네를 살해한다. 결국 나폴레옹에 대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의도치 않게 아버지와 외삼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나폴레옹을 구한 사람이 되고 만다. 메다르두스는 이와 같이 영웅드라마에 등장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신분적으로도 그는 시민 계층에 속하는 평범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슈니츨러는 모순적이고 나약한 심성의 평범한 영웅을 통해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메다르두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갈등과 고통의 근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슈니츨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문학에 도입하여 성적 본능에 추동되는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아나톨 Anatol』(1893), 『윤무 Reigen』(1897), 『초록 앵무새 Der grüne Kakadu』(1898), 『꿈의 노벨레 Traumnovelle』(1925) 등은 작가의 이러한 관심과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특히 『초록 앵무새』의 인물 양리는 과잉된 현실 도피와 그릇된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메다르두스와 유사성을 보인다. 양리는 매춘부 출신의 애인 레오카디를 정숙한 부인으로 만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미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오카디의 정조에 대한 의혹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늘 불안감에 시달린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리는 부도덕한 행실을 일삼는 애인의 정부를 살해하는 내용의 극중극을 계획한다. 말하자면 현실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연극적 현실을 통해 해소하고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술집주인이자 극장장 프로스페르로부터 레오카디가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양리는 정부 카디낭 공작을 살해한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그는 비극적 인물이 되고만 것이다.

슈니츨러는 이러한 애욕의 세계를 메다르두스를 통해서 형상화했다. 메다르두스가 헬레네를 살해한 것은 왜곡된 성적 욕망이 이성적 도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의 내면은 극단적인 성적 욕망으로 빚어진 거짓 환상에서 비롯된 병적인 정신세계를,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하는 가치관의 붕괴로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의 심리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양리의 가정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왜곡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메다르두스의 사명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나폴레옹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이 아닌, 전적으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메다르두스의 내면 분석을 위한 또 다른 요소로 운명개념을 꼽을 수 있다. 작품에서 운명은 주인공의 행동을 지배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음과 운명은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운명이라는 개념에 내

재되어 있는 무거움을 제거하고 있다. 운명은 그로테스크한 것이고 우연의 소산 일 뿐이다. 운명으로 인해 죽음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Friedrichsmeyer 1969, 38ff.). 이러한 해석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 보자면 이렇다. 교도소 안에 홀로 남은 메다르두스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콤플렉스에 젖어 든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영웅인 것에 감히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헬레네를 살해하고 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성적 욕망과 시민으로서의 해방윤리 사이에서 그로 하여금 번민하도록 부채질한 존재다. 전쟁영웅으로서의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얻으려 했던 원래의 목표로부터 떨어진 메다르두스는 헬레네의 유혹에 무너진 자신의 허무한 삶과 새로운 의미 찾기 사이에서 번민한다.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⁴⁾에 휘둘리는 주인공은 다시 운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운명, 즉 영웅적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제 그에게 남은 가능성은 영웅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는 대가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죽음을 선택하면 나폴레옹은 물론 오스트리아 국민으로부터 그는 영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의 사면제의를 거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메다르두스의 선택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은 숭고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않다. 그는 주위세계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된다. 사형이 집행된 후 나폴레옹의 부관참모인 라프 장군은 클레어 부인에게 나폴레옹의 위로를 전한다. “**라프** : (메다르두스는) 이 전쟁의 마지막이자 가장 독특한 영웅이었습니다”(ME 265). 아울러 그는 어리석은 존재로 간주된다. 에첼트는 사형 집행 직전 라프 장군과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라프** : 황제께서 기대하신 것도 다르지 않았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젊은 친구는 다른 편에 섰어야 했었소. **에첼트** : 그렇습니다, 장군님. 신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바보가 되었지요”(ME 265). 그는 “흔들리는 심성의 기회주의자,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이상주의자”(Jürgensen 2014, 86)로서 본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무의미한 죽음을 자초한 것이며, 독자는 예정된 길에서 계속 벗어나는 메다르두스의 모습에서 '영웅적인 것에 깃들여 있는 희극성'(Urbach 1968, 86)을 발견하게 된다.

4)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은 'II.3. 욕망과 선택의 괴리'에서 따로 다루겠다.

II.3. 욕망과 선택의 괴리

메다르두스에게서 나타나는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맹목성, 도덕성 부재, 주위 세계와의 소통불능 등은 현대의 개인주체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욕망과 합리적 선택의 괴리라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무의식과 이성적 사고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무책임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실체와 만나는 순간에는 두려움에서 그것을 회피하는, 즉 무의식 속으로 다시 그것을 내쫓아 버린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 안에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이것을 억압의 상태 또는 억압된 소망으로 간주하며 그 가운데 성적 욕망을 가장 핵심적 요소로 본다.

작품 속에서 욕망에 휘둘리는 대표적인 인물은 메다르두스와 헬레나이다. 두 사람에게 욕망은 삶을 추동하는 동력이다. 헬레나는 왕권회복을 실현 불가능한 허상으로 보지 않고 실재라고 믿고 있으므로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욕망을 숨긴 채 황제암살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복수심을 부추기면서 메다르두스를 암살자로 만들려 한다. 메다르두스는 어머니에 의해 소망된 영웅의 이념이 허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의 욕망은 여동생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망각되지만, 헬레나가 품고 있는 음험한 욕망의 뒷에 걸려들어 되살아난 것과 같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는 억압으로 남아있다. 그의 욕망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지 자신의 자유의지로부터 발원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려난 억압은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 의미체계 안에 고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메다르두스의 불안한 주체는 타자의 담론이며 무의식의 형태로 내면화된 체계라는 것인데, 결국 무의식 안에서 주입된 것과 충족된 것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욕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캉 Jacques Lacan이 말했듯이, “결핍이 바로 욕망인 것이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욕망의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또 다른 대상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라캉은 욕망의 환유라고 불렀다”(이동성 2005, 310f.). 즉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주체는 상처를 입고 열등감과 자기비하에 시달리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자신의 욕망에 가해지는 제한을 넘어서려 한다. “라캉의 심리분석에서 주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과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의 중심에 욕망이 있다”(전동열 2016, 183). 성적으로 한층 강화된 메다르두스의 욕망은 헬레나의 욕망에 완전히 종속된다. 그러면서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내면에서 광기가 솟아오른다. 광기는 다시 환상을 부르고 욕망의 실현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도록 만든다. 메다르두스가 사면의 제의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은 영웅의 허구적 이미지에 사로잡힌 욕망, 그리고 타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라캉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이렇다. 메다르두스의 죽음은 영웅이라는 기표와 구체적 대상인 기의 사이에서 변주되는 욕망의 환유라는 연관 고리 속에서 자의적으로 행한 선택의 결과이다.

Ⅲ. 시민사회 비판

Ⅲ.1. 영웅주의

심리적으로 분열되고 불안정한 내면의 소유자인 반영웅 메다르두스의 이미지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사회비판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그의 본능적인 욕망과 충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내밀한 욕망과 그 근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직후인 1914년 10월 베를린 레싱 테아터에서 공연된 『젊은 메다르두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메다르두스의 반영웅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사회비판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흥행에 실패한 작품은 공연 일정목록에서 일찌감치 삭제되었다. 게다가 작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악평이 뒤를 이었다. 작가에게 쏟아진 비판 대부분은 메다르두스의 영웅 이미지에 관련된 것이었다. 슈니츨러는 당시의 느낌을 한 편지에 남겼다.

주인공이 마지막 막에서 어떤 식으로 영웅적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극이 이 순간까지 전개되는 동안 그가 편협하고 고지식하게 목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마치 바보와 같은 짓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영웅의 본질처럼 생각하면서 이미 첫 막에서부터 보려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계속해서 시야에서 놓치면서 이 영웅은 흥미로운 대상이 되죠. 그는 망설이고, 번덕을 부리며, 방황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더 애착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신문의 기사문에서나 볼 수 있는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결코 영웅이라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Schnitzler 1984, 69).

비평가와 관객의 영웅에 대한 단순하고 편협한 시각은 당대 시민사회의 전쟁 열광과 자기도취적 허위의식에 다름없는 애국심으로 형성된 영웅주의적 세계관

을 반영하고 있다. 슈니츨러는 『젊은 메다르두스』를 통해 무엇을 의도한 것일가의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당대 시민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작품이 흥행에 실패한 것은 작품의 전면에 이념을 쫓고 목표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며 행동하는 비범한 인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작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 욕망의 실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평범한 인물은 빌헬름제국 시기의 독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영웅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젊은 메다르두스』는 1910년 빈 부르크테아터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된 공연들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다. 또한 1914년 슈니츨러는 이 작품으로 라이문트상 Raimund-Preis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베를린 공연의 흥행실패는 작품성에 대한 것보다는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은 작품수용의 변질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전쟁에 이제 막 돌입한 시기의 독일 비평가들이 슈니츨러의 “흥미로운” 영웅 이미지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역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비호되는 극우적 성향의 문화 프레임에 그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폭력과 대결의 문제,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슈니츨러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Müller-Seidel 2000, 17; Bobinac 2015, 34).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전쟁의 참상과 무의미함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에 주목했었던 지식인들이 오스트리아에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 『젊은 메다르두스』가 당시의 이러한 문화적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생산된 작품이라는 것을 독자는 짐작할 수 있겠다. 슈니츨러는 이 시기에 작성한 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상당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늘 야만성과 약탈의 욕구, 그리고 악의적 요소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준비가 되어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상응하는 경우가 되면 야비하고 잔혹한 행위에 뛰어들 것이다(Schnitzler 1967, 189f.).

5) 예컨대 슈니츨러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지식인이었던 프로이트 Sigmund Freud와 크라우스 Karl Kraus 역시 전쟁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문명의 단절 요인으로 보았다(Le Rider 2015, 67).

『젊은 메다르두스』는 시민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리고 전쟁의 참상과 무의미함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 즉 시민사회의 정형화된 영웅 이미지에 대한 슈니츨러의 글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는 이제 보다 분명해진다. 슈니츨러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요소로서 전쟁을 미화한다거나 전쟁의 폭력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당대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이후 유럽사회는 전쟁을 평화의 대적점에 있는 악의 요소로 간주하던 태도를 지양하고, 전쟁에 이성을 부여함으로써 전쟁을 합리적 현상이자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전쟁 폭력을 국가권력의 핵심으로, 그리고 정책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마키아벨리, 홉스, 클라우제비츠, 헤겔 등의 사상가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불가피성 내지 인간의 삶과 활동 속에 내재된 나름의 기능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 국가운영과 정치활동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하나의 필요악으로 간주하였다(서영식 2016, 186).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대다수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전쟁에 대한 열광은 이러한 이념의 수용을 한층 넘어선다. 농, 어촌보다 도시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열광은 교양시민계층에까지 널리 확산되었고, 심지어 유대계 지식인과 시온주의자, 그리고 랍비까지 망라한 것이었다 (Raithel 1996, 504; Breuer 1986, 342). 이러한 도취상태로 발전되는 데 자양분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의 발흥이라 하겠고, 유대인의 경우에는 동화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 받을 좋은 기회라는 인식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양시민계층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전쟁현실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시각에서보다는 문화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사상가 부버 Martin Buber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쟁은 허무와 물질주의가 팽배하던 당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변화기제로 평가되었다’(Sieg 2008, 57). 물론 전쟁이 지속되고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전쟁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견지했던 초기의 믿음은 환멸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그리고 현실변화의 긍정적 가능성으로 간주되었던 전쟁에 대한 열광은 부버와 같은 당시의 지식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었던 현상이었다.

III.2. 빈 시민사회의 정신적 특성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음에서 슈니츨러의 시민사회 비판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모순적 인물 메다르두스는 19세기 빈 시민사회의 정신적 특성들을 반영한다. 무책임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빈 시민사회의 내적 양상들이 그를 통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작품에는 79명의 방대한 인물과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작가는 사회의 근본 특성들을 한 인물에 집약하면서도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애국심과 영웅주의 등에 대한 빈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한다. 물론 ‘복잡한 설정과 이야기, 그리고 방대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작품은 내적 일관성을 놓치기 쉬운 구조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Polgar 1985, 44f.), 수용자의 객관적 관찰과 판단을 작가가 의도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슈니츨러는 빈 시민사회의 부정적 특성으로 천박한 애국심, 폭력성을 동반한 전쟁열광, 과도한 호기심, 허위의식 등을 꼽는다. 모두 인간의 왜곡된 내면과 욕망에서 비롯된 개념들이다. 애국심에 대한 그릇된 시각은 빈 시민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주로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 남성들에게서 발견된다. 메다르두스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날 저녁 가족과 송별연을 벌이는 자리에서 부대기 축성식 장면을 묘사한다.

메다르두스 : 그 순간은 기도드릴 때와 같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 우린 행진곡에 맞추어 요새 앞 제방위로 되돌아왔지요. 황제폐하가 그곳에 계셨어요. 황실가족들과 황태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축성 받은 깃발을 향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ME 89).

메다르두스의 주위에서도 이러한 감상적이고 저급한 애국주의가 관찰된다. 군입대가 좌절된 것을 비판하며 한 젊은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쟁에 열광하는 청년들의 맹목성에 대한 참전용사의 경고는 무시된다. 시민군을 이끌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점령군에게 반란자를 밀고하는 자도 있다. 애국자로 자부하는 시민들 중에는 지도를 점령군에게 넘겨 이득을 얻으려는 자가 있으며, 서적상인 메다르두스의 어머니 클레어 부인 역시 프랑스 관련 서적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며 기뻐한다.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프랑스군에 저항하는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

았다. 빈 시민사회는 이미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위선과 순응의 능력을 발휘하며 빈 시민들은 프랑스 군인들을 상냥하게 맞이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빈 시민들은 자국의 몰락이라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걱정보다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며 즐거워한다는 사실이다. ‘이성보다 감정을 중시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된 빈의 변화된 일상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볼거리로 간주하면서 스스로 적의를 소멸시켜버린 시민들의 내면에는 경박하고 유희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Bachmann 2003, 58).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고 황폐화된 빈의 거리를 둘러보는 구경꾼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침략자 나폴레옹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존재가 된다.

리프라예 :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도, 나처럼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 우린 프랑스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궁을 둘러보았네. 황제가 창문가에 모습을 드러내지나 않을까, 아니면 사열식 참석을 위해 나서지 않을까, 사람들은 황제를 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ME 184).

슈니츨러는 시민사회의 모순성과 더불어 전쟁과 세계몰락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권력계층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고 있다. 나폴레옹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배후에서 인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가혹행위는 전적으로 그의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작가는 그가 현혹과 이기주의로 점철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역시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도시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포위되자 도피한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저항과 희생을 강요하는 인물이다. 지역방위군으로 소집된 민간인들을 지휘하는 도시방어 책임자 막시밀리안 대공 역시 지도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인물이다.

쉐프만 : 이런 전갈이 왔습니다. 막시밀리안 대공이 이미 도나우 강을 건너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건너간 다리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고, 오라일리 장군에게 이 나라를 넘기고 항복조약을 체결할 전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ME 180).

프랑스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망명지인 빈에서 왕권 회복을 노

리는 발루아가 역시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을 예시한다. 소시민가정 클레어의 순진한 이상주의에 대비되는, 헬레네를 중심으로 한 발루아 왕가의 본질은 암살과 간계로써 욕망을 채우는 일이다.

Ⅲ.3. 진정한 영웅 에센바허

등장인물들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영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메다르두스의 외삼촌 에센바허이다. 그는 주위에서 들끓고 있는 도취에 가까운 영웅주의의 무모함을 무화시키려 애쓰며, 용기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도덕성과 세계관 측면에서 빈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물 메다르두스의 속성을 이기주의와 현실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조망하고 역사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이성주의자이고 회의주의적 성향의 인물이다.⁶⁾ 그는 빈 시민사회의 감상적 영웅주의를 비판하며,⁷⁾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다.

에센바허 : 4년 전 일들이 생각나는가? 그때 프랑스인들이 쳐들어왔고 우리 황제께서는 도망을 쳤었지 [...] 배반자라고 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황제는 다시 돌아왔네 [...] 이제 프랑스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당시에 그랬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네. 시장과 대주교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향해 걸어가서 도시의 열쇠를 넘겨 주겠지 [...]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인들이 도시 안으로 행진해 들어오면,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야. 젊은이와 노인, 신사 숙녀 모두가 - 특히 젊은 신사들과 숙녀들은 용감한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지(ME 86).

그러나 에센바허는 세계의 변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해 세계가 변화될 것에 그는 확신한다.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도를 프랑스군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다가 밀고당하고, 결국 총에 맞아 죽는 그의 책임 있는 모습과 용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작품에서 에센바허는 비판적 지성에 무능한 시민적 자

6) “에센바허 :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함의 진실한 자식이다”(ME 95).

7) “에센바허 :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세. 죽는다는 것은 예술이 아니네. 결국에는 모두가 죽긴 하지만, 긴급한 경우도 아닌데, 단지 용기를 뽐내기 위해 목숨을 던진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네. 그건 영웅이 아니고 바보일세”(ME 201f.).

아를 각성시키고 현실을 보다 명료하게 관찰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 및 관객은 모순적 언행에 대한 자성이 부재하고, 호기심과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메다르두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물들에게서 공감과 동정심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라는 시각에서 전쟁과 영웅주의에 대한 환상에 젖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며 역사의 의미를 늘 현재 안에서 찾고 그에 상응하는 미래를 모색하는 에센바허의 모습에서 작가의 의식 세계를 만나고, 또한 역사의 의미 찾기가 가능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젊은 메다르두스』는 역사드라마 또는 영웅드라마의 프레임을 지니고 있지만, 작품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주요 인물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묘사는 최소화되거나 거의 무시되었다. 슈니츨러는 대신 나약한 심성의 영웅 메다르두스의 이미지에 집중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빈 시민사회의 모순적 실체와 주위세계의 요구에 따라 휘둘리는 인간의 억압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메다르두스는 작가의 시민사회 비판과 더불어 파멸을 향해 다가가면서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형상화한 존재라고 하겠다.

슈니츨러는 메다르두스에게서 나타난 왜곡된 내면과 욕망을 통해 빈 시민사회의 천박한 애국심, 전쟁열광, 과도한 호기심, 허위의식 등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작품이 생산되었던 세기말의 빈 시민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 베를린 공연에서 작품이 흥행에 실패한 것에도 시민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웅주의로 가려진 메다르두스의 왜곡된 욕망에 대한 작가의 비판은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작가가 작품에 79명의 방대한 인물들과 집단을 등장시킨 것 역시 그의 치밀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슈니츨러는 한 인물에 사회의 부정적 특성들을 모으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을 수용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메다르두스는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측정할 수 없는 낭패감 때문에 좌절하고 파멸하는 인물이다. 자아를 억압하는 공허한 관념의 노예가 되

어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는, 개인의 욕망을 완전하게 인식하며 판단과 행동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연인 헬레네에 대비되는, 주도성이 상실되고 수동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문제적 인물이다. 사면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메다르두스의 행위는 영웅을 연기하기 위한 허위의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배신한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선택이자 해소되지 않은 성적 욕망의 발산을 은폐하기 위함이고, 무의식 안에서 억압된 채 그의 행동을 추동하는 영웅이라는 허구적 이미지에 사로잡힌 욕망에서 비롯된 그릇된 선택의 결과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Schnitzler, Arthur(1967): Aphorismen und Betrachtungen. Frankfurt a. M.
_____ (1979): Der junge Medardus. Dramatische Historie in einem Vorspiel und fünf Aufzügen. In: Ders.: Das dramatische Werk. Bd. 5. Frankfurt a. M.
_____ (1984): Briefe 1913-1931. Frankfurt a. M.

2차 문헌

- 서영식(2016): 서양근대의 전쟁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86, 167-191.
이동승(2005): 라캉의 구조주의 욕망이론. 동서언론 9, 291-324.
전동열(2016): 라캉의 심리분석에서 기표, 의미 작용과 사이버네틱스의 작동 방식. 독어독문학 137, 177-199.
Bachmann, Holger(2003): Arthur Schnitzler und Michael Curtiz. Der junge Medardus auf der Bühne und im Kino. Essen.
Beßlich, Barbara(2007): Der deutsche Napoleon-Mythos. Literatur und Erinnerung 1800 bis 1945. Darmstadt.
Bobinac, Marijan(2015): Schnitzlers Pazifismus und das Medardus-Drama. In: Kriegstaumel und Pazifismus hrsg. v. Hans Richard Brittnacher u. Irmela von der Lühe. Frankfurt a. M., 33-49.
Breuer, Mordechai(1986): Jüdische Orthodoxie im Deutschen Reich 1871-1918. Die Sozialgeschichte einer religiösen Minderheit. Frankfurt a. M.

- Friedrichsmeyer, Erhard(1969): Bemerkungen zum Heldischen bei Schnitzler.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2(4), 38-41.
- Jürgensen, Christoph(Hg.)(2014): Schnitzler-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 Kienzle, Siegfried(Hg.)(2001): Reclams Schaubühnenführer. Stuttgart.
- Le Rider, Jacques(2015): (Un)zeitgemäßes zum Krieg. Freud-Schnitzler- Kraus. In: Kriegstaumel und Pazifismus hrsg. v. Hans Richard Brittnacher u. Irmela von der Lühe. Frankfurt a. M., 67-83.
- Müller-Seidel, Walter(2000): Literarische Moderne und Erster Weltkrieg. Arthur Schnitzler in dieser Zeit. In: Krieg der Geister. Erster Weltkrieg und literarische Moderne hrsg. v. Uwe Schneider und Andreas Schumann. Würzburg, 13-37.
- Offermanns, Ernst L.(1981): Geschichte und Drama bei Arthur Schnitzler. In: Arthur Schnitzler in neuer Sicht hrsg. v. Hartmut Scheible. München, 34-53.
- Polgar, Alfred(1985): Der junge Medardus, eine dramatische Historie von Arthur Schnitzler. In: Kleine Schriften. Bd. 5 hrsg. v. Marcel Reich-Ranicki in Zusammenarbeit mit Ulrich Weinzierl. Hamburg, 44-50.
- Reithel, Thomas E.(1996): Das Wunder der inneren Einheit. Studien zur deutschen und französischen Öffentlichkeit bei Beginn des Ersten Weltkrieges. Bonn.
- Sieg, Ulrich(2008): Jüdische Intellektuelle im Ersten Weltkrieg. Kriegserfahrungen, weltanschauliche Debatten und kulturelle Neuentwürfe. Berlin.
- Urbach, Reinhard(1968): Arthur Schnitzler. Velber bei Hannover.
- Žemgac, Viktor(2002): Geschichte und Geschichtsphilosophie im modernen Drama. In: Literatur im Zeugenstand. Beiträge zur detusch-sprachigen Literatur-und Kulturgeschichte hrsg. v. Edward Bialek u. a. Frankfurt a. M., 189-203.

Zusammenfassung

Subjekt der Begierde und Zivilgesellschaft in Arthur Schnitzlers *Der junge Medardus*

Kim, Heegeun (Hanyang Univ.)

Medardus Klähr ist eine widersprüchliche Figur. Zu Beginn des Dramas tritt er

als Patriotismus-Wächter auf. Obwohl er sich als Held zeigt, ist er eine Person, die eine Liebesbeziehung mit einer Prinzessin der königlichen Familie Valois in Frankreich hat und darüber den Willen zum Widerstand gegen die französische Armee vergisst, der ihm eine schicksalhafte Aufgabe war. Dieser Widerspruch scheint die Bedeutung des Werks als Heldendrama zu untergraben. Die Bewertung des Dramas ist jedoch nicht so einfach. Medardus wirft in der zweiten Hälfte des Dramas das Bild des Anti-Helden ab. Er lehnte die Begnadigung ab und beschliesst, ein Held zu werden und zu sterben. Sein Tod ist jedoch nicht das Ergebnis ethischer Entscheidungen, die durch den Prozess der Selbstreflexion getroffen werden. Es ist die Folge einer äußerst persönlichen und falschen Begierde. Hinter der Figur des Helden, der sein Leben für das Vaterland gibt, steht die Figur eines Verlierers, der sich nicht für den Tod seiner Familie rächen kann und frustriert von der Liebe zu seiner Geliebten ist. Einerseits spiegelt seine unterdrückte Innenseite Schnitzlers Skepsis gegenüber der Zivilgesellschaft und den negativen Auswirkungen der Geschichte wider, andererseits drücken sich hier metaphorisch die unbefriedigten Wünsche moderner Menschen aus, die aufgrund verzerrter Obsessionen und Missverständnisse falsche Urteile fällen.

Schlüsselwort: Arthur Schnitzler, Helden-Begriff, Subjekt der Begierde,
Kritik der Zivilgesellschaft, Jacques Lacans Theorie der Begierde.

필자 E-mail: pius2108@hanyang.ac.kr 교수

논문투고일: 2020. 9. 21 / 심사완료일: 2020. 11. 9 / 게재확정일: 2020. 11. 14

